

방글라데시의 농업현황과 농업정책 *

김민성
(한국수출입은행 심사역)

1. 일반연왕

1.1. 일반·정치외교 연왕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은 남아시아 대륙의 북동부에 소재하며 동쪽으로는 미얀마, 서쪽으로는 인도, 남쪽으로는 벵갈만과 접하고 있다. 면적은 14만 7,570km²로 한반도 면적의 약 2/3 규모이다. 인구는 1억 5,908만 명으로 세계 국가별 인구 순위 8위에 해당된다. 인구밀도 기준으로는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세계1위(1,222명/km²)를 기록하였다(World Bank 2014). 방글라데시는 7개의 구(Division)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의 명칭은 각 구의 주도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약 1,188만 명이 수도인 다카(Dhaka)에 거주하며, 제2도시 치타공(Chittagong)(약 751만 명), 실렛(Sylhet)(약 340만 명), 라자히(Rajshahi) 등 7대 도시에 전체 인구의 21%가 거주한다.

국민의 약 95%가 아리아언어의 하나인 벵골어¹⁾를 사용하며 지식인, 비즈니스 종사자는 영어에 능통하다. 주요 종교로는 이슬람교(88%), 힌두교(10%), 불교(1%)가 있으며 세계 네 번째²⁾로 무슬림이 많은 국가이다.

* (mskim@koreaexim.go.kr).

1) 유일한 공용어임

소수민족 비중이 낮아 문화적 동질성은 높으나 문맹률이 높고, 인구의 1%를 차지하는 상류층이 국부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빈부격차가 심각하다.

북회귀선에 가까운 방글라데시는 아열대 몬순기후로 겨울(11월~2월)은 온난하고 여름(3월~6월)은 고온다습하며 우기(7월~10월)가 있다. 이 나라를 강타하는 홍수, 사이클론, 토네이도, 해일 등의 자연 재해는 거의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저먼워치(Germanwatch) 2014년 세계기후위험지수(Climate Risk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1993년부터 2012년 간 기후변화로 인해 5번째로 큰 피해를 입은 국가이다. 동 기간 동안 242건의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연간 평균 816.35명의 인명손실과, GDP의 1.16%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림 1 방글라데시 지도



자료: Britannica(http://premium.britannica.co.kr/bol/illust.asp?med_id=obangla001m4.html).

2)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순임

영국령 인도는 1947년 독립되었으나, 종교적인 갈등으로 힌두교 지역은 인도로, 이슬람 지역은 인도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나뉜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되었다. 1947년 종교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동벵갈지역(현 방글라데시)은 파키스탄의 일부로 인도로부터 독립하였으나, 동파키스탄인 차별정책에 대한 반발 심화로 분리주의를 내세운 아와미연맹(Awami League)이 집권하면서 독립전쟁을 거쳐 1971년 방글라데시로 국명을 변경하고 파키스탄에서 독립이 확정되었다.

1972년 헌법에 의해 방글라데시는 의회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으나 그 후 약 30년 간 정치적인 혼란과 부정이 만연하였다. 13명의 행정 수반 중 초대 대통령 셰이크무지부르라만과 후계자 지아울라만 등 2명이 암살당했으며, 쿠데타가 4번 이상 일어났다. 그 이후 두 번의 적법적인 정권교체가 있었으나, 이슬람 테러라는 국가적인 위협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1991년 9월)³⁾로 복귀 후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교·국방에 대한 형식적 권한⁴⁾만 보유하고 내각 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⁵⁾하여 현 총리인 셰이크하시나(Sheikh Hasina)⁶⁾가 행정권의 수반이다.

방글라데시는 2014년 1월 5일 제10대 총선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증폭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치폭력 사태가 전국적으로 빈발하면서 치안도 매우 악화되어 정정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폭력사태를 비난하며 여야 간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총선 이후에는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여야 참여 하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총선을 다시 개최할 것을 촉구하였다. 방글라데시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가 2014년 기준, 176개국 중 145위로 정치적 불안과 부정부패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사회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2. 경제·사회 연황

방글라데시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GDP의 5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26.5%, 농업이 15.1%를 구성하고 있다(CIA The World Factbook 2014). 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 생산비중이 가장 높지만,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는 농업부문의 비중⁷⁾

3) 1975년 1월~1991년 8월까지의 대통령중심제이었음.

4) 임기 5년,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5) 의회 다수당 총재가 총리가 되고, 내각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

6) 초대 대통령 Sheikh Mujibur Rahman의 장녀임.

7) 농업은 전체 노동인구의 45%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아 구조적 개선이 요구됨.

이 가장 높다. 농업은 GDP의 15%를 점유하고 있으나, 전체 노동인구의 45% 이상이 동 부문에 종사하는 후진국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봉제의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황마, 냉동 새우, 차(茶), 가죽제품 등이 있다. 대표적 수출산업인 의류산업은 방글라데시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인구의 약 5.3%인 400만 명이 동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섬유, 기계, 연료, 곡물, 전자 및 전기기기, 철강 및 금속 등이

표 1 방글라데시 주요 경제지표

구분	경제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e	2015f
국내 경제	GDP	억달러	1,312	1,417	1,618	1,866	2,093
	1인당 GDP	달러	858	916	1,033	1,179	1,309
	경제성장률	%	6.5	6.3	6.1	6.2	6.4
	국내총투자/GDP	%	27.9	28.3	28.5	29.2	30.1
	실업률	%
	재정수지/GDP	%	-3.6	-3.0	-3.4	-2.7	-3.3
	소비자물가상승률	%	10.7	6.2	7.5	7.2	6.8
대외 거래	환율 (달러당, 연중)	Tk	74.2	81.9	78.1	77.6	77.6
	경상수지	백만 달러	381	3,217	2,366	1,261	813
	경상수지/GDP	%	0.3	2.8	1.8	0.8	0.5
	상품수지	백만 달러	-8,370	-6,510	-6,373	-7,297	-7,698
	수출	"	25,626	25,428	28,623	31,199	34,069
	수입	"	33,997	31,938	34,996	38,495	41,767
	서비스수지	"	-2,894	-2,944	-3,443	-3,689	-3,990
	FDI 순유입	"	1,183	1,473	1,498	1,623	1,676
	유입	"	1,185	1,475	1,502	1,627	1,680
	유출	"	2	2	4	4	4
	외환보유액	"	7,775	11,393	16,580
	외채 현황	정부채무/GDP	%	42.4	43.1	42.3	41.1
국내정부채무/GDP		"	22.5	22.5	24.0	24.0	23.6
해외정부채무/GDP		"	19.9	20.6	18.3	17.1	16.6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27,043	26,851	29,173	31,056	33,586
총외채잔액/GDP		%	24.2	23.1	22.5	20.3	19.2
단기외채		백만 달러	4,901	5,783	6,656	6,656	6,656
외채상환액/총수출		%	2.7	3.5	3.5	3.9	3.7

주: e=estimate, f=forecast.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4).

있다. 제조업의 58%를 차지하는 의류산업을 제외하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자본재 및 소비재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2014년 기준 1억 5,900만 명에 이르며 2013년 기준 총인구의 65.2%가 경제활동인구(15~64세)로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월 평균임금은 주변국⁸⁾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인 74달러⁹⁾이며, 낮은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방글라데시는 의류부문의 수출 호조세와 함께 해외 근로자 송금, 농업부문 생산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활성화,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 증가 등으로 2011년 이후 6%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취약한 세수기반으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연료비 보조금 축소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4년 2.7%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5년 석유 보조금 완화에도 불구하고 세금 증가폭이 크지 않아, 재정적자 비율은 -3.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임금인상과 보조금 축소에 따른 연료 및 전기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2%로 상향되었으며, 2015년 국제상품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6.8%로 완화될 전망이다.

표 2 방글라데시 주요 사회 지표

항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인간개발지수 ¹⁰⁾	0.453	0.494	0.539	0.549	0.554	0.558
1인당 GNI (Atlas, 달러)	380	470	780	870	950	1010
초등학교 순등록률	-	91.78	91.55	-	-	-
초등학교 수료율	-	63.81	66.45	74.56	-	-
중등학교 순등록률	44.61	42.13	46.04	45.82	47.75	-
중등학교 수료율	52.82	51.78	53.81	58.45	-	-
모성사망률(10만 명당)	340	260	200	-	-	170
영유아사망률(5세 미만, 1,000명당)	88.1	66.9	49.1	46.1	43.4	41.1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2014).

8) 월평균 임금수준은 베트남 145달러, 파키스탄 173달러, 인도 276달러임(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9) 섬유제품의류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2013년 12월 최저임금인상(월 38달러에서 77% 인상한 68달러로 책정) 단행.

10) Human Development Index, World bank(2014).

방글라데시는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중 절대빈곤감소, 양성평등, 아동사망률 감소, 말라리아 및 주요 질병 감소 등의 목표는 이미 달성하였거나 달성 가능성이 높은 반면,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모성보건, 지속가능한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보편적 초등교육 목표는 달성 가능하지만, 등록률 대비 수료율이 높지 않아 교육환경의 개선과 등록금 지원확대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 및 모성사망률이 여전히 높고, 전염성질병뿐만 아니라 비전염성질병의 발병률도 증가하고 있어 훈련된 조산사 양성 및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1.3. 우리나라와의 관계 및 공적개발원조 연왕

방글라데시는 한국과 1973년 12월 18일 국교를 수립¹¹⁾하였으며 항공협정(1979년), 문화협정(1979년), 사증면제협정(1983년), 이중과세방지협약(1983년), 투자보증협정(1986년), 경제기술협력협정(1993년), 과학기술협력협정(1995년), 에너지협력 양해각서((200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기본협정(2010년)등 주요 협정을 체결하였다(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KOTRA).

표 3 한-방글라데시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對 방글라데시	2012	2013	2014	주요 품목
수 출	1,459	1,427	1,236	합성수지, 철강판, 종이제품
수 입	295	332	345	의류, 가죽, 기타섬유제품
교역규모	1,754	1,759	1,581	-

자료: 한국무역협회(2014).

2013년에는 석유제품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죽 및 섬유제품의 수입증가로 전체 교역량이 17억 6,000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에는 석유제품 수출이 1억 2,000달러로 급감하면서 전체 교역량이 15억 8,000달러로 대폭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해외직접투자는 2014년 기준 234건으로 2억 9,000달러(누계기준)를 기록하였다(한국수출입은행 2014).

한국은 지난 5년(2009-2013)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교육부, 기획재정부, 농촌진흥청 등 약 20개 부처 및 기관에서 총 2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무상원조

11) 북한과는 1973년 12월 16일 국교를 수립함.

사업으로 약 5,00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¹²⁾ 14건의 프로젝트사업과 1건의 개발건설
 텅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무상원조사업은 승인액 기준 2009년 800만 달러에서 2012년
 2,800만 달러로 3.5배 증가하였으나, 정치적 리스크로 인하여 2013년 1,400만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유상원조사업은 최근 5년 간 약 2억 달러를 집행하였고¹³⁾ 그 중 상
 수도, 전력, 통신 등 사회적생산기반시설 부문에 대한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4 한국의 對방글라데시 지원 추이(2009-13)

(백만 달러)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무상	승인	7.97	7.25	15.69	27.32	14.60	72.83
	집행	3.39	8.99	8.72	10.39	18.67	50.16
유상	승인	69.27	92.74	74.03	114.59	-	350.63
	집행	11.71	47.39	73.09	38.13	29.45	199.77
집행 합계		15.10	56.38	81.81	48.52	48.12	249.93

자료: OECD/DAC 통계(2013, 확장기준).

동 기간 부문별 원조사업은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교통 및 저장부문이 8,600만 달러
 (36%), 에너지부문이 4,600만 달러(19%), 통신부문이 4,500만 달러(19%), 교육부문이
 3,200만 달러(14%)이었으며, 기초보건,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식수공급 및 위생부문
 순으로 지원되었다.

표 5 한국의 對방글라데시 분야별 지원 현황(2009-2013)

(백만 달러, 집행액)

구분	교통 및 저장	에너지	통신	교육	보건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식수공급 및 위생	기타
금액	86.81	46.35	45.12	32.67	5.58	4.65	1.02	17.51
(%)	36.21	19.34	18.82	13.63	2.33	1.94	0.42	7.31

자료: OECD/DAC 통계(2013, 확장기준).

또한 최근 5년(2009-2013년)간 방글라데시 주요 10대 양자공여기관의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방글라데

12) 화학산업기술훈련원 역량강화사업(2013-16/500만 달러), 다카지역 중등학교 IT 교육지원사업(2012~14/353만 달러) 등임

13) 비비야나-칼리아코 송전망 개발사업(2010, 1,091만 달러), 광대역 무선통신망 구축사업(2013, 829만 달러) 등임

시 정부에게 있어 우리나라는 중요한 ODA공여국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지원규모 기준 일본, 미국, 영국 다음 네 번째 국가(4억 2,300만 달러)에 해당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ODA지원을 유상원조로 한정하여 국가별 누적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유상원조는 방글라데시에 1993년 최초 지원을 시작하여 2014년 말까지 총 20건 8억 4,800만 달러(9,466억 원)를 승인하였다. 이는 2014년 말 기준 전체 EDCF 누적 승인액의 8.2%를 차지하며 총 52개 지원국 중 2위에 해당한다. 양자지원국 중에서는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하는 큰 규모로, 한국의 유상원조 국가로 방글라데시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6 방글라데시 10대 양자공여기관의 ODA지원 규모(2009-2013)

(백만 달러, 집행액)

순위	공여기관	지원규모	순위	공여기관	지원규모
1	일본	3,665	6	네덜란드	364
2	미국	1,004	7	호주	343
3	영국	912	8	독일	330
4	한국	423	9	덴마크	264
5	캐나다	377	10	스웨덴	246

자료: OECD/DAC 통계(2013, 확장기준).

유상원조는 교통, 통신, 수자원 및 위생, 보건 등 다양한 사업부문에 균형적으로 지원 되었다. 최근 4년(2011~14)간 8개 사업, 4억 5,200만 달러를 승인하였으며, 수자원 및 위생부문이 31%, 보건부문이 29%, 통신부문이 17%를 차지하였다. 특히 교량, 철도,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교육부문 등은 수원국 실시기관(방글라데시 각 정부부처)의 EDCF에 대한 높은 선호와 양호한 원조 수용태도로 인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표 7 한국의 對방글라데시 유상원조 분야별 지원 현황(1993-2014)

(백만 달러, 승인액)

구분	공공 행정	교육	교통	보건	수자원/ 위생	에너지	통신	계
금액	73	39	174	131	142	127	163	849
(%)	8.6	4.6%	20.5	15.4	16.7	14.9	19.2	1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통계(2014).

2. 농업연망

2.1. 농업여건

방글라데시는 전형적인 저개발농업국가로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약 15%이지만, 농업생산성이 낮고 전체 노동인구 중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인구의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이에 외국자본과 원조에 의존하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8 방글라데시 노동인구

구분	인구(단위: 백만 명)				성장률(%)		
	1999	2004	2009	2014	1999 -2004	2004 -2009	2009 -2014
전체인구	129.97	141.24	149.50	158.51	1.68	1.14	1.18
노동인구	57.96	65.20	70.79	76.91	2.28	1.66	1.67
농업분야 노동인구	32.33	33.22	32.76	31.97	0.54	-0.28	-0.49

자료: FAOSTAT 통계(2014).

경제활동인구 중 농업종사자 비율은 2014년 기준 41%(7,700만 명)로 1999년 약 55%(5,800만 명), 2004년 약 51%(6,500만 명), 2009년 약 46%(7,000만 명)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농업부문의 노동인구의 비율은 높은 편이며 2014년 기준 약 70%의 인구가 농촌에 거주한다. 농업부문 노동인구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47%와 53%로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더 높은 수준이다.

표 9 방글라데시 토지면적 구조

구분	2012(단위: 천 ha)
전체 국토면적(Country Area)	14,846
육지면적(Land Area)	13,017
농지면적(Agricultural area)	9,125
경지면적(Arable land)	7,675
영년식물면적(Permanent crops)	850
숲면적(Forest area)	1,436
관개면적(Total area equipped for irrigation)	5,300

자료: FAOSTAT 통계(2014).

방글라데시의 전체 국토면적은 2012년 기준 약 1,484만 ha이며, 이 중 경지면적은 약 768만 ha이다. 이는 10년 전인 2002년 경지면적 약 825만 ha와 비교해 볼 때, 약 7%가 감소되었으며, 57만 ha에 해당하는 경지면적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년생 작물 재배지역은 약 85만 ha이고, 숲 면적은 약 146만 ha로 전체국토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관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면적은 약 530만 ha이며 이는 15년 전인 1997년 약 381만 ha에 비해 140% 성장한 수치이다.

표 10 방글라데시 1ha당 작물 생산액

구분	생산액(USD)				성장률(%)		
	1997	2002	2007	2012	1997 -2002	2002 -2007	2007 -2012
1ha 당 작물생산	1,197	1,529	1,921	1,795	5.02	4.67	-1.35

자료: FAOSTAT 통계(2014).

2007년 방글라데시의 1ha당 생산액은 1,795달러이었다. 1997년부터 2002년 간 생산액은 5%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7년 간 약 4.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7년 이후로는 성장률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2. 생산

방글라데시에서는 2012년 생산량 기준 쌀이 약 5,000톤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감자가 약 800톤, 사탕수수가 약 4,600톤, 우유가 약 2,600톤 등으로 생산되고 있다. 동년 생산액 기준으로는 쌀이 약 86억 달러, 감자가 약 13억 달러, 우유가 약 8억 7,000달러 등으로 상위 순위는 생산량 기준의 순위와 비교하여 큰 변동이

표 11 방글라데시 쌀 품종

품종	설명
아만 (Aman)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흔한 쌀 품종으로 문순계절 직전 혹은 문순기간에 직파 또는 이앙 방식으로 식재하며, 직파는 보통 3월에, 이앙은 6~8월에 하여 11~1월에 수확한다.
아우스 (Aus)	문순 이전인 3~5월에 직파와 이앙으로 식재하며 6~8월에 수확한다. 대부분 아만보다 전에 식재하기 때문에 홍수에 의해 깊이 잠겼던 지역에서 아만 대신 심는다.
보로 (Boro)	겨울의 건기(12~1월에 심고 4~5월에 수확한다. 아우스 또는 아만과 달리 보로는 홍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심으며 관개배수가 필요하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1).

없었다. 그러나 망고, 망고스틴, 구아바 등 열대과일은 약 5억 6,000달러, 식용육우는 약 5억 2,000달러 등으로 생산량 기준 10위 품목 순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생산액 기준 10위 품목에 포함되었다.

표 12 방글라데시 농업 생산현황(2012)

순위	상품	생산량 기준 (톤)	상품	생산액 기준 (천 달러)
1	쌀	50,497,000	쌀	8,649,168
2	감자	8,205,470	감자	1,312,276
3	사탕수수	4,603,003	우유	875,193
4	우유	2,608,000	망고, 망고스틴, 구아바	566,248
5	황마	1,452,044	소(식용)	526,833
6	아채류	1,325,000	염소(식용)	479,194
7	옥수수	1,297,717	황마	411,229
8	양파	1,159,259	열대과일류	410,715
9	열대과일류	1,005,000	우유	260,571
10	밀	995,356	아채류	249,684

자료: FAOSTAT 통계(2014).

쌀은 계절에 따라 다른 종자를 식재한다. 방글라데시는 서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인도 다음으로 쌀 경지면적이 가장 넓으며,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다. 인도는 2011년 기준 439만 7,000ha의 쌀 경지면적에서 1억 5,700만 톤의 쌀을 생산하였으며, 방글라데시는 인도 다음으로 넓은 1,200만 ha의 쌀 경지면적에서 5,040만 톤의 쌀을 생산하였다. 또한 1990년부터 2000년 간 3.5%성장률과 2000년부터 2011년 간 2.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생산성 기준으로 서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표 13 방글라데시 가축사육두수(2013)

구분	사육두수
소	25,465,000
염소	57,500,000
가금류	291,500
총합	83,256,500

자료: FAOSTAT 통계(2014).

방글라데시의 가축사육두수는 2013년 기준 총 8,300만 마리이다. 염소가 5,700만 마리로 전체 가축사육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가 2,500만 마리, 닭·오리 등의 가금류가 29만 마리 순으로 사육되고 있다. 주로 농업에 필요한 가축을 기르기 위한 목적의 가축사육 구조를 보이며, 돼지고기 금기하는 이슬람 문화권 국가의 특성에 따라 돼지사육은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2.3. 교역

방글라데시는 정부는 농업부문 육성에 정책최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한 집약적 다작농업방식을 추진하여 식량자급자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미비와 과잉 인구 및 홍수로 인한 잦은 생산 손실로 농업생산성이 불안정하여 매년 곡물의 상당량을 수입 할 정도로 타국에 대한 농업의존도가 높다.

방글라데시의 연간 곡물 수입은 약 313만 톤으로 16억 5,200만 달러 규모이다. 그 중 밀 수입은 275만 톤으로 11억 1,800만 달러이며, 수입규모가 가장 큰 곡물이다. 쌀은 시기에 따라 소량 수출하기도 하지만 이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38만 톤, 3억 4,800만 달러)를 수입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방글라데시의 수입액 중 식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입의 약 18%이다(FAOSTAT data 2014).

표 14 방글라데시 곡물 수출입 현황(FY 2013/14)

(백만 달러)

수출		수입	
쌀	4.8	밀	1,117.5
기타		옥수수	185.9
		쌀	347.5
		기타	1.3
합계	4.8	합계	1,652.2

자료: KOTRA Global Window(2015).

2.3.1. 수입 및 수출

방글라데시의 주요농산물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수입량 기준 밀이 311만 2,314톤으로 가장 많이 수입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원당이 125만 3,474톤, 팜오일(Palm Oil) 94만 6,000톤, 면화 56만 311톤 등의 순으로 수입되었다. 또한 동년 수입액 기준으로는 팜오일이 12억 달러로 가장 많으며, 면화가 11억 3,408만 달러, 밀이 10억 8,238만

표 15 방글라데시 농산물 수입현황(2011)

순위	상품	수입량 (톤)	상품	수입액 (천 달러)
1	밀	3,112,314	팜오일	1,200,000
2	원당	1,253,474	면화	1,134,086
3	팜오일	946,000	밀	1,082,388
4	면화	560,311	원당	791,413
5	옥수수	529,259	대두유	400,000
6	대두유	424,000	정제설탕	184,675
7	양파	268,109	옥수수	155,945
8	정제설탕	246,104	전지분유	154,277
9	대두박	239,500	대두박	120,000
10	콩류	211,784	사과	114,608
상위 10	소계	7,790,855	소계	5,337,392

자료: FAOSTAT 통계(2014).

달러, 원당이 7만 9,141만 달러 등의 순으로 수입되었다.

단일품목으로는 양파(수입량 기준), 사과(수입액 기준)가 상위 10대 수입품목에 포함 된 것이 특징이다.

방글라데시의 주요 농산물 수출품목은 2011년 수출량 기준 황마가 42만 441톤으로

표 16 방글라데시 농산물 수출 현황(2011년)

순위	상품	수출량 (톤)	상품	수출액 (천 달러)
1	황마	420,441	황마	248,147
2	감자	53,717	담배	70,442
3	솜밥	25,260	솜밥	14,979
4	담배	19,864	채소류	13,704
5	음료수	14,305	감자	12,696
6	식용유	12,656	식용유	10,745
7	참깨씨	12,000	참깨씨	8,000
8	과일주스	6,506	음료수	6,729
9	채소류	5,753	가루반죽	5,466
10	냉동감자	5,144	건과류	5,185
상위10	소계	575,646	소계	396,093

자료: FAOSTAT 통계(2014).

가장 많이 수출되었으며, 감자 5만 3,717톤, 솜밥 2만 5,260톤, 담배 1만 9,864톤 등의 순으로 수출되었다. 또한 동년 수출액 기준으로 황마가 약 2억 4,814만 달러로 가장 많이 수출 되었으며, 담배가 7,044만 달러, 솜밥이 1,497만 달러, 채소류가 1,370만 달러 등의 순으로 수출되었다.

방글라데시 제1위 수입국은 중국이며 63억 800만 달러(2012/13 회계연도 기준)총 수입액의 21.7%를 차지하며 이다. 농산품부문에서는 인도가 제2위 수입국이며 47억 4,1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16.3%를 차지하며 주요 품목으로는 면사, 곡물 등이 있다.

3. 농업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

3.1. 국가개발전략 및 농업부문 개발 전략

방글라데시 정부는 독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장기계획 “비전 2021 현실화(Making Vision 2021 A Reality, 2010-2021)정책”을 수립하였다. 동 정책은 새천년개발목표와 동일 선상에서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 및 단계별 개발목표 달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공동목표를 가지고 작성되었다.

방글라데시의 제6차 5개년 개발계획(Sixth Five Year Plan 2011-2015, SFYP)은 중장기적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개발역량을 집중시키고 국가 발전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5년까지 국가경쟁력 강화, 역동적 사회경제발전과 효율적 거버넌스 확립을 위하여 제6차 5개년 개발계획 하의 12개 주요 목표¹⁴⁾를 설정하였다. 또한 목표달성을 위해 ‘경제성장과 고용’, ‘노동력 증대 및 질 높은 노동력 공급’, ‘지역불균형 감소’ 등의 추진 전략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빈곤경감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 1, 2차 계획(2000~2010)과 맥을 같이 한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10년간의 노력으로 빈곤격차¹⁵⁾는 과거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으며 농촌 빈곤율은 감소하였다. 빈곤가구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득불평등 또한 완화되었다. 반면 빈곤경감전략정책으로 도시 빈곤율¹⁶⁾이 오히려 증가

14) ①자유민주주의 달성 ②정책개선과 부패근절 ③인적자원개발 ④인구증가 억제 ⑤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 ⑥산업화와 무역확대 ⑦세계화와 지역협력 ⑧전기와 연료 공급확보 ⑨식량안보 ⑩사회기반시설 구축 ⑪친환경개발 ⑫방글라데시 전자화인

15) 총소득에서 하위 40% 가구 소득 비율: 20.7%(2000) → 21.3%(2010), 지니계수 변화: 33.22(2000) → 32.12(2010) (World Bank).

16) 최빈곤 인구 비율은 수도인 Dakar에서 가장 높음(32%). Rangpur, Barisal, Khulna 지역은 2005-10년 사이 빈곤 가구 비중이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농촌 빈곤인구의 도시이동에 따른 현상으로 방글라데시 정부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빈곤경감 전략이 빈곤감소를 위한 긍정적인 정책으로 작용되었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은 빈곤경감전략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발전될 것이다.

2015년 말에는 방글라데시의 제7차 5개년 개발계획(Seventh Five Year Plan 2016-2020)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방글라데시 정부는 제6차 중기 개발계획을 평가 중에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제7차 5개년 개발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방글라데시는 장기 개발계획인 Vision 2021의 주요 전략목표로 ‘식량안보, 농업과 농촌 개발’¹⁷⁾을 선정하였으며, 중기 추진전략에서도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업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표 17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방글라데시 정부는 농업 개발을 국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의제로 인식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표 17 방글라데시 장기 전략 목표 및 중기 추진 전략

Vision 2021 전략 목표	SFYP 2011-2015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과 번영의 조직적 기반 중소독국가 진입 달성 식량안보, 농업과 농촌 개발 산업화 달성 세계화와 지역협력 디지털화 에너지 안보와 개발 교통과 통신 도시화 문제 해소 인적개발 빈곤해소 지속가능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업 성장 수출 다각화와 제조업 발전 에너지 개발을 통한 고성장 일자리 창출 교통서비스 효율화를 통한 비용감소 도시화 문제 해소 지식경제로의 전환 교육환경 개선 보건 영양 부문 개선 빈곤 및 취약집단 접근성 강화 환경·기후변화·재난대응

자료: 국무조정실, 방글라데시 국가협력전략, 방글라데시 재무부, 발표 자료 취합(2012).

4. 요약 및 시사점

방글라데시의 2014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은 1,080달러로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그룹에 속한다(World bank 2014).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최근 5년간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세계 8위

각각 12% 이상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방글라데시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임
 17) 글로벌 식량 안보 보장 지수(Global Food Security Index) : 총 109개국 중 89위(2015년 기준, Economic Intelligence Unit.)

의 인구대국으로 총 인구의 65.2%가 경제활동인구(15~64세)로 낮은 임금수준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등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절대빈곤(absolute poverty)¹⁸⁾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적 생산기반 시설 확대와 빈곤감소를 위한 국내 재원 및 해외 원조액의 투입 확대 등으로 절대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중점지원국가로 선정 되어 집중적인 지원을 지속하여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하였다. 방글라데시는 유상 원조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두 번째, 최빈국 중에서는 1위의 원조대상국이 되었다. 이처럼 방글라데시는 개발협력 파트너로서도 우리나라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전체 인구 중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요 농산물로는 쌀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밀, 고원 원예작물 등이 있다. 농업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기준 약 25.2%에서 2014년 15%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제조업 국가로 전환을 노력중이다. 하지만 농업종사자 대비 농업부문 생산성은 크게 낮은 수준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투자 없이 국가발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인구는 매년 약 200만 명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지면적은 768만 ha로 1인당 경지면적이 약 0.05 ha에 불과하여 농지에 대한 압박이 심각하며, 경작률 또한 175%로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1인당 경지 면적감소와 이와 관련한 환경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가의 장기 및 중기 개발전략에 농촌과 농업개발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관리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부과제로 곡물생산의 집약화, 고부가가치 작물과 비식량작물로의 다변화, 농가공과 저장, 가공, 판매 등 부가가치 증대를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방글라데시 농업개발 부문의 긍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농촌 및 농업부문의 발전은 단지 해당부문의 개발에만 국한 되는 것은 아니다. 방글라데시 농촌빈곤의 주요원인은 높은 인구밀도, 비효율적인 토지제도 및 협소한 농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사회적 생산기반시설 부족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농업부문 개발과 빈곤감소를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체계 하에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농업 관개수로 등 농업부문의 사회적 생산기반시설 개발뿐만 아니라, 농촌개발을 위한 농민들의 역량강화, 농업의 피해를

18)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의 측면에서 정의된 빈곤의 수준임.

최소화하기 위한 자연재해 대책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 비중이 높은 방글라데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농업기술 강점을 접목하여 쌀 생산 증대 및 작물재배 다양화를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지 기후에 맞는 벼 품종 개발과 ICT융복합화를 통한 첨단산업화, 농업의 6차 산업화, 세계시장을 겨냥한 농식품 수출확대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개발협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종합하여 방글라데시를 제2기(2016-2020) 중점지원국가로 선정하고 유·무상을 아우르는 국가별협력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는 향후 5년간 더욱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12. 『방글라데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2-2015』. 국무조정실.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5. 『2015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2015. 『방글라데시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한국수출입은행.
- 허장, 이대섭, 정승은, 홍정원. 2011. 『중점협력국 농업분야 현황 기초조사 : 6개국을 대상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FAO. 2014. *FAO STATISTICAL YEARBOOK 2014 Asia and the Pacific Food and Agriculture*.
FAO.

참고사이트

- 세계은행(www.worldbank.org)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www.premium.britannica.co.kr)
- FAO STAT(www.faostat3.fao.org)
- Global Food Security Index(www.foodsecurityindex.eiu.com)
- KOTRA Global Window(www.globalwindow.org)
- OECD DAC 통계(www.stats.oecd.org)